

### ● 심장병에는 유전적 인자도 있다.

심장병 중에서도 협심증,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질환은 같은 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적 인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
미국의 윌리엄스 박사 등이 하이리스크족(한 가정에 55세 이하의 허혈성심질환 환자가 2명이 있는 가계)을 조사하였는데, 양친은 공히 허혈성심질환인 경우 어린이의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가계와 비교할 때 약 5~10배나 높고 한쪽 부모만 그럴 경우도 2배나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었다.

또 하이리스크의 사람들이 가진 기초 질환 중 3종류의 위험인자(가족성 고지혈증, 고혈압증, 흡연) 가운데 적어도 1가지가 25%의 비율을 나타내었다는 보고도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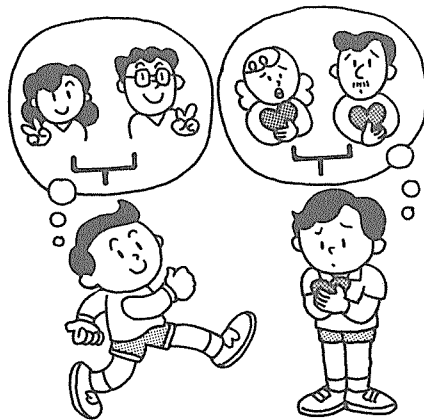
윌리엄스 박사에 따르면, 하이리스크의 사람들은 담배연기의 성분 에 의해 유발되는 생화학 매카니즘의 유전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.

### ● 유전적 인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인자의 배제에 노력해야 한다.

허혈성심질환을 일으키기 쉬운 가계의 사람은 유전인자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인자를 멀리할 수 있도록 생활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.

또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혈성심질환의 가계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2세는 확실하게 유전적 인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.

### ● 유전적 요소가 있는 심장병의 위험을



본태성 고혈압은 유전하는 확률이 높으며, 양친 공히 고혈압일 경우의 발증률은 약 75%, 한쪽 부모가 고혈압일 경우는 약 50% 정도라고 한다.

또, 고혈압과 관계가 깊은 당뇨병의 경우는 양친이 당뇨병이면 어린이가 당뇨병이 되는 확률이, 평균인 사람보다 약 5배 높다고 한다.

고지혈증, 동맥경화증도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. 72

<다음 호에 계속>